

침묵과 빛을 읽고

몇몇 정신적인 원리에서 축적된 인간 존재와 관련된 완전한 사상은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미를 담고있는 건축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인간은 자의식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부터 세상에 속한 자신의 장소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으며 문화 역시 이러한 장소를 완전하게 고수하기 위한 일련의 투쟁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투쟁은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의 1번째 장, 침묵과 빛에서는 칸이 디자인한 건물의 사진, 그의 말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그의 말을 보완할 수 있는 역사적 건물의 사진이 실려있다

이 책은 칸이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 것을 서술한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루이스칸은 미국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동시대에 활동한 시인 같은 건축가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의 만남을 건축으로 생각한 루이스 칸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의 만남을 시라고 생각하는 시인의 자세와 같았다

책 22쪽의 빛부분에서의 “내가 종이 위에 잉크를 한 번 문힐 때, 나는 검은색은 빛이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왜냐 하면 나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 즉 내가 검게 칠한 곳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검은색은 그림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였지만 루이스 칸에게는 검은색이 그림자가 되게 되는 과정과 그걸로 얻은 효과나 영향을 알게되었으며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것을 루이스칸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효과도 좋게보고있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페이지 42쪽의 벽부분에서는 공간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은 건축개론 수업때 들어서 알고있었는데 공간의 일부분인 벽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인간이 밖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벽은 고통을 받는다는 부분을 보고 1학년설계실에서 벽을 없앤 공사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책에서는 벽은 인간들의 의지로 인해서 자신의 몸(벽)에 구멍이 생기는 것에 많이 슬퍼하고 있지만 벽에 구멍이 생긴 후 인간들은 밖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나는 촉감을 느끼고나서 그 느낌만 생각을 하였지 내가 이걸 만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나의 욕구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못했지만 루이스 칸은 촉감은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루이스 칸의 촉감의 대한 생각을 보고나서 나랑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내가 일차원적인 생각과 말들은 한다면은 루이스칸은 더 나아가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까지 생각하는 점을 보고 많이 반성을 하게되고 나도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루이스 칸이랑 나의 생각이 달랐던 부분도 있었다

페이지 16에서의 지식에서 루이스 칸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으며 재능은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당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 또한 존재를 하며 많이 노력을 해야만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거나 안했다

루이스 칸을 읽으면서 루이스칸과 나의 생각을 많이 비교를 하였으며 루이스칸의 생각을 좀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루이스칸의 생각처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 책의 좋은점은 다른 책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만 있지 평면,단면도는 없지만 다른책과 달리 이책 뒤편에는 루이스칸이 설계,건축을 하였던 건축물이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건축물의 평면,단면도가 같이 옆에 실려있어 좋았던 것같다